

※ 이 자료는 2023년 7월 11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실물경제 활성화 및 수출플러스를 위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

2023. 7. 11.



산업통상자원부

순서

I. 現 實물경제 평가 및 하반기 전망 1

II.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 4

1. 수출 확대 4

2. 첨단산업 등 투자 확대 5

3. R&D 혁신 선도 7

4. 지역경제 활력 제고 8

5. 경제안보 통상 강화 9

I. 現 實물경제 평가 및 하반기 전망

□ 수출, 외투 등 경가지표가 개선중이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

- 16개월 만의 월간 무역수지 흑자 전환, 역대 최고 외국인투자 기록
 - * 무역수지 : 23.6월, 16개월 만의 흑자 (+11억불)
 - 외투: 상반기 신고기준 역대최대 실적, 금액 170.9억불(+54.2%), 건수 1,649건(+0.7%)
- '24년 경기회복 본격화 시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으로 반등 전망
 - * 경제성장률 전망('23→'24년, '23.4월 IMF): (우리나라) 1.5→2.4%, (선진국) 1.3→1.4%
- 중국 경기상황*, 반복되는 불법파업 등은 경제반등의 지연 요인
 - * 코로나19 하에서 누적된 IT 재고 未소진, 부동산 침체, 지방정부의 구매력 저하 등

□ 자동차, 조선 등 중심으로 성장 지속, 반도체는 하반기 개선 예상











- 자동차·조선·이차전지 등은 견조한 생산·수출 흐름을 유지할 전망
 - 자동차는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SUV의 판매 증가 전망
 - 조선은 '21년 선가 상승분 반영 및 고부가선 수주 호조 예상
 - 이차전지는 '22년 말 기준 수주잔고가 '22년 3社 매출의 15배 이상인 775조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매출 발생 전망
- 반도체는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
 - * 메모리 3사 평균 재고 추이(Trendforce) : ('23.1~2Q) 16주 → (3Q) 15주 → (4Q) 13주










□ 수입은 에너지와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감소 전망

- * 수입 상·하반기 전망(전년동기비, 한은): $\uparrow \Delta 7.4 \rightarrow \downarrow \Delta 8.4\%$
- 하반기 국제유가는 70불대 후반으로 전년대비 약 15%가량 하락 전망

◇ 반도체 업황과 對中 수출 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이르면
9월 이후 무역수지 흑자 기조 유지, 4분기 월별 수출 플러스 전망

※ 각 업종별 협회 전망, 2023년 하반기 경제·산업전망(산업연) 등 참고

업종	최근 동향		'23년 하반기 전망	
반도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반도체 수요둔화로 수출·업황 부진 지속 * ('23.上 수출) 432.1억불(△37.4%) * '23.2Q 가격: (D램) △22%, (NAND) △6%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요 기업 감산, 모바일·PC 수요 증가 등으로 점진적 업황 회복 ▶ 10월 이후 수출 플러스 전환 전망
자동차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기차의 판매 호조로 인해 '23.上 수출은 사상 최고 * ('23.上 수출) 356.6억불(46.5%) ▶ 車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상반기 생산은 큰 폭 증가 * ('22.1~5월) △3 → ('23.1~5월) 26%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기수요 소진 우려가 있으나, 공급망 정상화, 신차 출시 효과에 따라 수출 플러스 유지 ▶ 5년 만에 연간 400만대 이상 생산량 회복 전망 * 생산량: ('22년) 376 → ('23년⁶) 400만대 ↑
석유화학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으로 업황 회복 지연 * 글로벌 에틸렌 생산설비 규모 : ('20) 1.9 → ('23) 2.3억톤 (21% ↑) ▶ 또한, 中 리오프닝 효과 지연으로 수출물량 및 단가 동시 하락 * ('23.上 수출) 232.3억불(△23.2%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3년 말에 생산시설 증설이 점차 완료됨에 따라 업황 회복세 전환 ▶ 中·印 등 수요 증가로 수출 회복 * '24년 총선을 앞둔 모디 총리는 최근 건설/인프라 투자를 확대
기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美·EU 등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 증가 및 중동 건설업 회복으로 전체 수출은 플러스 전환 * ('23.上 수출) 266.7억불(+1.8%) - 다만, 對中 수출 감소세 지속 * ('23.上 수출) 37.4억불(△18.2%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중동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등으로 전체 수출은 소폭 증가하나, - 중국의 설비투자 침체 가운데 자국산 대체 등에 따라 수요 확대 제한적
조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전세계 고부가(61%)·친환경(50%) 선박 수주실적 1위('23.1~6월) * 특히, LNG운반선은 압도적 1위(87%) ▶ 대우조선 2조원 투자유치 완료 → 민간 경영체제 본격 추진(5.23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'21년 대량 수주된 고부가 선박의 수출 호조에 따라 수출 대폭 증가 ▶ 대형3社の 흑자 전환 기대 * 12년 만에 동시 흑자 기록 가능성

업종	최근 동향		'23년 하반기 전망	
철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中·美·EU 등 글로벌 수요회복은 지연되는 반면, 국내는 자동차·조선 중심으로 수요 개선 ▶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으로 수입 증가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조선업 수요 양호, 전년도 침수 사태 기저효과로 내수 증가(2.6%↑) ▶ 中 감산기조, 인도 등 신흥국의 견조한 수요로 수출 플러스 전환
디스플레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바일·TV 등 세트 수요 감소, LCD 생산 감축으로 매출 부진 * '23.1Q 매출(%): (LGD) △33, (삼성D) △17 ▶ 다만, 삼성D IT용 OLED 4.1조원 투자계획 발표('23.4) 및 투명·차량용·XR 등 신시장 진출 추진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태블릿, 노트북 등 IT용 OLED 수요 확대에 따른 증설투자 지속 ▶ 세트 신제품 출시 등 수요회복 및 프리미엄 OLED 생산 확대로 수출 회복세
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글로벌 브랜드의 對아세안 소싱오더 감소 → 베트남·중국 등 생산기지향 섬유소재의 수출 부진 * ('23.上 수출) 56.3억불(△13%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재고수준 하락 및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 감소세 둔화
바이오헬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엔데믹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및 진단키트 판매 부진으로 상반기 수출 감소 * ('23.上 수출) 67.9억불(△26.5%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바이오시밀러 신규출시, CMO 생산능력 확대는 수출 플러스 요인이나, * '23.6월 기준, 삼바 제조능력 세계 1위 달성 ▶ 백신 및 진단키트 판매 둔화로 전체 수출 감소세 지속
이차전지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배터리 3社 1분기 역대 최고 매출액 달성 * (22.1Q) 8.9 → ('23.1Q) 16.9조(90%↑) ▶ 비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유지 * '23.1~5월 시장점유율 (상위 10개사 기준, SNE Research) 비중국(%): (韓) 47.3, (中) 31.2, (日) 19.2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양극재 공장 준공·재가동 등 국내 생산 캐파 확대로 양극재 수출 확대 전망
가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세계 경기둔화와 금리·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상반기 수출 부진 * ('23.上 수출) 40억불(△8.0%)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美 물가 상승 둔화 및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수출 플러스 전환

Ⅱ. 하반기 산업정책 방향

* 밑줄은 "하반기 경제정책방향"(7.4) 포함 내용

- ◇ 무역수지 흑자전환(6월), 사상 최대 외투실적 달성('23.상) 등 경제반등 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이어나가기 위해 ①수출 확대, ②투자 촉진, ③R&D혁신 선도, ④지역경제 활성화, ⑤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 중점 추진

1 수출 확대

□ 하반기 수출플러스 전환을 위한 총력 지원

- 수출전략회의(대통령 주재),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(산업부 장관) 등을 통해 범정부 수출 비상대응체계 운영
 - 로봇, 바이오 등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시리즈로 발표하고, 쏠 업종 수출·투자 점검회의 지속 개최
-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**184조원**의 무역금융 공급(연간 365조원)
- 범정부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, 수출유망 품목 중심의 「수출 현장 지원단」, 원스톱 수출 119 등 지원체계 가동
 - 中 리오프닝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10월 광저우(추계 수출입상품교역회), 11월 상하이(국제수입박람회) 등 적극적 수출 마케팅을 전개

□ 주요 수출국, 수출품목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

- 아세안 전기차, 중동 LNG 운반선 등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**수출 전략 프로젝트** 추진(추후 별도 발표)
- 세일즈 외교가 실질적 수출성파로 이어지도록 「중동 데스크(MEKA)」 설립, 폴란드 전기차·배터리 협력 등 맞춤형 지원 강화

□ 근본적인 수출체질 개선을 위해 **중장기 무역경쟁력** 강화

-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**무역구조 대전환 전략**」 수립
 - * △수출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, △수출품목과 시장 다변화 등
- 청년 무역인 양성, 스타트업 등 수출촉진으로 수출저변 확대
 - *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,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'23년 1,500명 육성

2 첨단산업 등 투자 확대

□ 투자를 가로막는 '킬러규제' 혁파

- 업계와 소통하면서 **킬러규제를 발굴**하고 과제별 개선방안 도출
 - * 반도체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,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물질 시설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·제도 개선 既 완료
- 특별한 사유없이 최대 60일 內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**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**(7월)으로 투자 속도 제고
- 타부처와 관련된 화평법·화관법, 중대재해법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TF를 통해 적극 해결

□ 반도체,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대한 **금융·인프라 지원 강화**

- 해외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원+α 금융을 지원하여 투자 뒷받침
 - ▶ (한국투자공사) 해외 첨단기업 인수합병시 공동투자(6.5조원)
 - ▶ (혁신성장펀드) 新성장 4.0 국가전략산업 등 자급공급(3.0조원)
 - ▶ (업종별 펀드) 반도체 생태계펀드(0.3조원) 및 이차전지 R&D혁신 펀드(0.2조원) 등
 - ▶ (공급망기금) 국내외 설비투자, 해외기업 인수합병 등 지원(+α)
- 정책자금을 활용한 마중물 투자, 세액공제 추가 연장 등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 제공방안 검토
- 클러스터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**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**와 함께 **소부장 특화단지** 선정(7월말)
 - * 첨단전략산업: 분야반도체·디스플레이·이차전지 / 지원내용인프라, 인허가 신속처리 등
 - * 소부장: 분야미래차·바이오·반도체 등 / 지원내용수요-공급기업 협력 R&D, 테스트베드 등
- 기업활력법상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
 - * (現) 과잉공급 완화, 신산업(규제샌드박스, 조특법상 신성장·원천기술) 진출,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→ (改) 공급망 대응 추가, 신산업에 소부장 포함
- 미래차 기술범위 확대, 사업재편 원스톱 지원, 국내·외 투자촉진(외투·지투·유턴) 특례 등을 위한 “미래차 부품 전환 특별법” 제정('23.下)

□ 상반기 최대 **외투 실적**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도록 **전방위 유치노력 전개**

* 외투 실적: '22년 305억불, '23.상 171억불

- 국가 최고위급 **외국인 투자유치 행사**(^{가칭}Invest Korea Summit)를 개최
- '24년 외투기업 전용 R&D 사업을 신설하여, 글로벌 기업의 국내 R&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

* 글로벌기업 산업기술 연계 R&D 사업 : 외투기업(주관기관)과 국내 산학연(참여기관)의 공동연구개발 지원('24년도 38억원 반영 추진중)

- **첨단산업 분야의 유턴을 촉진**하기 위해 **최소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**

* 국가전략기술, 첨단전략기술에 대해 투자금액의 50%까지 지원(외투위 의결로 한도 설정)

□ **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및 낡은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 마련**

- 「바이오 경제2.0」 등 첨단산업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
- 주력산업의 **그린·디지털 전환**을 통해 **新주력산업**으로의 재도약을 촉진하고 **공급망 강화**, **에너지 新산업** 창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
- 인구절벽, 투자유출, 0%대 잠재성장률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민간 제언인 “산업대전환 전략” 발표('23.9월) 및 정책화 추진

< 하반기 업종별 정책 발표계획(안) >

정책명	주요내용	일정
바이오 경제 2.0	· 새로운 板기술로서 바이오를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 수립	7월
에너지 신산업 수출동력화	·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선점을 위한 유망품목 중심의 新수출동력 확충 등 전략 수립	7월
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	· 산업혁신,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유망新산업인 첨단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12대 프로젝트 추진	8월
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	· 미래선박 관련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 및 수출지원, 조선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 등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	9월
산업 공급망 3050 전략	· 산업별 공급망 취약품목 분석 및 대응전략 발표	10월
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.0	· 모빌리티 기술·시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 로드맵('20.4) 정비	10월

*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

3 R&D 혁신 선도

- 민간의 혁신역량을 키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**R&D 성과** 제고
 - 나눠먹기식 R&D 지원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·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% 이상 투자
 - 연구진이 연구성과에 맞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(現 500만원)를 상향
 - CVC 규제개선과 「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CVC 활성화 방안」 수립('23.하)으로 대·중견·벤처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 촉진
 - * 現 40% 이내로 제한된 외부출자 요건을 완화 추진
-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**글로벌 R&D 협력** 강화
 - MIT·예일大 등 세계우수 대학과 **공동연구 지원** 프로그램 신설('24년)
 - 산업부 R&D('23년 5.6조원)의 10% 이상을 글로벌 R&D에 투자하고, R&D 제도·프로세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편
 - * (예) 해외연구자·연구기관이 직접 정부 R&D 주체로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
 - 국가별·분야별 글로벌 R&D 협력, 글로벌 R&D 프로세스 개선 등을 위한 「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」 수립('23.9월)
- 첨단산업에 **인재가 적시 공급** 되도록 제도보완 및 해외인재 유치 강화
 - 「**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**」을 제정, 산업계의 인력양성기능 강화, 인력부족 예상 산업은 위기업종으로 지정하여 긴급지원 근거 마련
 -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해 기업과 함께 글로벌 유치 프로모션을 진행하고, 애로 해결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추진

4 지역경제 활력 제고

□ 총 87조원 규모 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

○ ‘현장 산업부’로서 지방을 직접 순회하며 애로 발굴·해소

* 예: 매매·임대 제한(산업입지법상)의 적극해석·예외확대 통해 신사업 투자(4.43조원) 견인(4월, 관계부처·지자체 등과 해결방안 마련) 등

□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기회발전특구 활용 및 인센티브 강화

○ 지방기업이 영업하기 좋고, 지방근로자가 정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

- ▶ (재정) 특구내 인프라 확충 지원,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
* (現) 투자금액의 3~50% 지원 → (改) 기회발전특구 이전시 +5%p 확대
- ▶ (개발부담금)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% 감면
- ▶ (세제) 기회발전특구 이전·창업 기업의 국세·지방세 부담 완화
- ▶ (금융) 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추진, 이자·배당소득 세제혜택 제공
- ▶ (규제) 규제특례 3종 세트(신속확인, 실증특례, 임시허가) 적용 등
- ▶ (정주여건 개선) 초·중·고 설립 지원,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

○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설비투자·토지매입에 대한 보조율 상향

* 대중건중소 설비투자 보조율: (現) 3~44% → (改) 4~45%(1%p씩 상향)

* 중견기업 토지매입 보조율: (現) 10~25% → (改) 15~30%(5%p씩 상향)

□ 산업단지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성장 거점으로 탈바꿈

* 「산업단지 관리제도 개편방안」 발표('23.8월)

○ 산단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여, 산단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을 新산업,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

○ 입주기업이 공장 등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단의 매매·임대 제도를 개편하고, 문화·편의 기능 중심으로 정주여건 개선

○ 모든 업종(금지업종 제외)의 입주를 허용하는 「업종특례지구」 활성화

* ❶특례지구 지정대상에 복합구역 추가, ❷신기술사업금융업,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 캐피탈을 금지업종에서 제외, ❸토지소유자 동의요건(3/4이상→2/3이상), 최소 면적 기준(국가산단 15만㎡ 이상 → 10만㎡ 이상) 등 신청요건 완화

5 경제안보 통상 강화

□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

- 한미·한-EU 정상회담 성과 후속조치를 통해 미국·EU와 **첨단산업 협력 강화**, ^美IRA·반도체법, ^{EU}경제법안 등 우려 해소 및 혜택 확대
- 3차례 한일간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**첨단산업·공급망 협력, 탄소 감축·에너지 안보**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
 - * (민) 한·일 산업협력포럼(전경련·경단련), 정밀화학 공동연구, 디스플레이 교류회 (관) 에너지^(5.25), 철강^(5.30).가스 대화 재개
- 「韓－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」를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·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, 서틀 경제협력단 지속 파견
 - * 제3차(농식품부, 사우디, 9월 잠정), 제4차(4분기)

□ 수출·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**안정적 공급망 구축** 총력 지원

- 공급망 이상징후를 포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(EWS)에 수입품목 외에 수출품목도 추가하고 빅데이터, AI를 활용하여 고도화
-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선정하여, 대체재 개발, 자원회수를 통한 재자원화 등을 적극 추진
 - * 갈륨 저감 디스플레이 소재('22~'25, 82억원), 희토류 대체 영구자석('22~'25, 170억원) 등 R&D 추진
- － 핵심광물의 정·제련, 재자원화 기술 등을 신성장·원천기술에 추가
- 특정국에 집중된 수입처를 ASEAN, 중앙아 등으로 다변화하고 IPEF 공급망 협정('23.5월 타결) 등을 활용한 우호국 간의 국제 공조도 추진
 - * 「희소금속 공급망센터」 조성 : 몽골('23년), 우즈베크('23년), 인니('25년 예정), 베트남('25년 예정)

□ **무탄소에너지(CFE: Carbon Free Energy) 국제규범 주도**

- **민관합동 「CFE 포럼」**을 통해 RE100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
- APEC 에너지 장관회의(8월), COP28(12월) 등 **CFE 아웃리치 활동 전개**